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11. 4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정책동향 연구부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200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3.0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 왔으나 10월에는 11.7p 상승하여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61.5)의 체감경기가 3개월째 기준선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71.0)와 지방업체(60.3)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11월의 건설경기(72.7)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공사물량(62.2)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공종별로 보면 모든 공종에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토목과 주택부문의 경우 물량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61.5)는 지난달 주택부문의 영향으로 물량이 6개월만에 감소한데 이어 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짐.
 -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2.5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관련 지수가 전월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와 인력의 경우 수급은 원활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다고 업체들은 응답함.
 - 인력수급(112.5)과 자재수급(114.6)은 규모별·지역별 모두 원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200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63.0, 체감경기 하락세 둔화

- 2005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3.0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지난 6월을 기점으로 3개월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 왔음.
 - 10월은 전월에 비해 11.7p 상승하여 체감경기의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공공부문의 경우 조기발주로 인해 하반기 들어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BTL 사업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체가 심각한 물량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 민간부문의 경우 8·31대책 이후 신규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8·31대책의 심리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대형업체의 경우 7월 이전에는 체감경기가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8월 이후 3개월째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71.0, 60.3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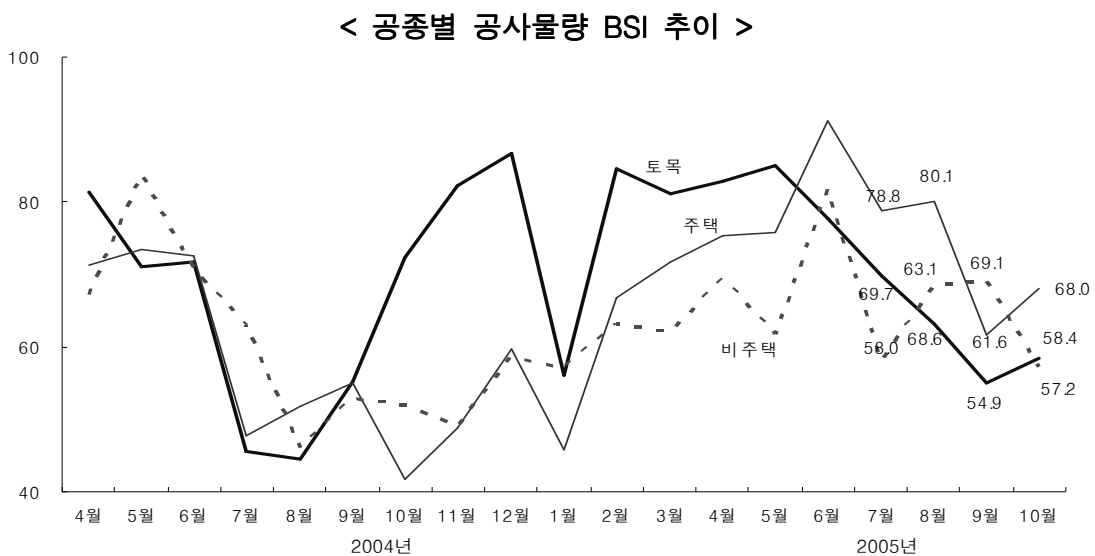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총 합		44.8	56.6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	63.0(64.9)	72.7
규모 별	대형	50.0	87.5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	41.7	61.5(58.3)	69.2
	중견	42.1	38.2	56.4	74.5	81.8	81.6	71.0	90.5	76.5	63.9	59.1	76.9(77.3)	87.2
	중소	41.7	41.3	34.1	56.5	49.1	58.8	65.9	57.4	41.5	54.0	53.7	48.9(58.5)	60.4
지역 별	서울	44.9	64.4	50.9	91.3	98.1	96.1	101.6	98.5	86.4	80.9	50.1	71.0(67.7)	79.6
	지방	44.8	43.8	41.2	60.0	50.4	57.7	54.4	63.6	59.8	57.6	55.5	60.3(76.6)	90.8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5년 11월 건설경기 전망은 72.7을 기록함.
- 11월 건설경기 전망은 전월에 비해 7.8p 상승함. 경기전망지수는 하반기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공사물량 감소세 둔화, 지수는 여전히 크게 부족

- 공사물량지수는 62.2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은 비교적 물량이 풍부했던 대형업체마저 물량부족을 나타내면서 공사물량지수가 크게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사물량은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토목물량지수는 58.4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교적 토목물량이 풍부했던 대형업체(69.2)마저 3개월째 기준선을 크게 밑도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주택부문(68.0)은 하반기 이후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왔으나 이번달에는 전월보다 6.4p상승하여 감소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부문은 57.2를 기록하여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대형업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지난달에 물량이 크게 감소한데 이어 금월에도 물량지수가 61.5에 머무름.
 - 중견업체가 76.3으로 가장 높으나 여전히 크게 기준선을 밑돌고 있어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46.8)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5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물량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69.4, 76.4를 기록하여,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조사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 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2.2	61.5	76.3	46.8	69.4	76.4
	전망	82.5	100.0	89.5	54.2	95.9	93.3
토목	실적	58.4	69.2	55.6	48.9	67.0	51.6
	전망	73.6	92.3	66.7	59.6	85.1	64.6
주택	실적	68.0	84.6	75.0	40.5	79.5	73.2
	전망	75.5	84.6	91.7	46.5	84.4	87.7
비주택	실적	57.2	61.5	63.9	44.4	61.5	52.2
	전망	75.5	92.3	80.6	50.0	83.8	76.9

주: 실적은 2005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1월 예측지수임.

-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2.5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의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0.0을 기록하여 11월에도 10월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중견업체(89.5)와 중소기업(54.2)는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인력 및 자재 조달은 원활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96.0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93.6을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어 비교적 자금사정은 좋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지속적으로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96.0	115.4	85.0	85.7	104.6	91.9
		전망	96.6	107.7	94.9	85.7	103.2	106.8
	자금조달	실적	93.6	100.0	97.5	81.6	101.7	105.9
		전망	92.4	100.0	97.5	77.6	101.7	105.9
인력	수급	실적	112.5	123.1	112.5	100.0	117.4	109.0
		전망	99.0	100.0	102.5	93.8	101.0	95.0
	인건비	실적	77.7	66.7	87.5	79.6	76.6	86.9
		전망	85.1	83.3	90.0	81.6	85.4	89.0
자재	수급	실적	114.6	123.1	115.0	104.2	122.4	118.9
		전망	97.9	100.0	97.5	95.8	101.0	100.0
	비용	실적	87.0	100.0	80.0	79.6	96.0	91.9
		전망	83.2	92.3	82.5	73.5	84.1	86.0

주 : 실적은 2005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11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은 수급은 원활하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112.5)과 자재수급(114.6)은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과 자재의 수급은 규모별·지역별 모두 원활한 상태임.
 - 인건비(77.7)와 자재비(87.0)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11월에도 인력·자재의 비용이 여전히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1, 83.2를 기록하여 최근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은 높을 것으로 조사됨.